

진드기, 설치류에 의한 발열성질환 예방 수칙

* (발열성질환)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급성 발열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

1. 핵심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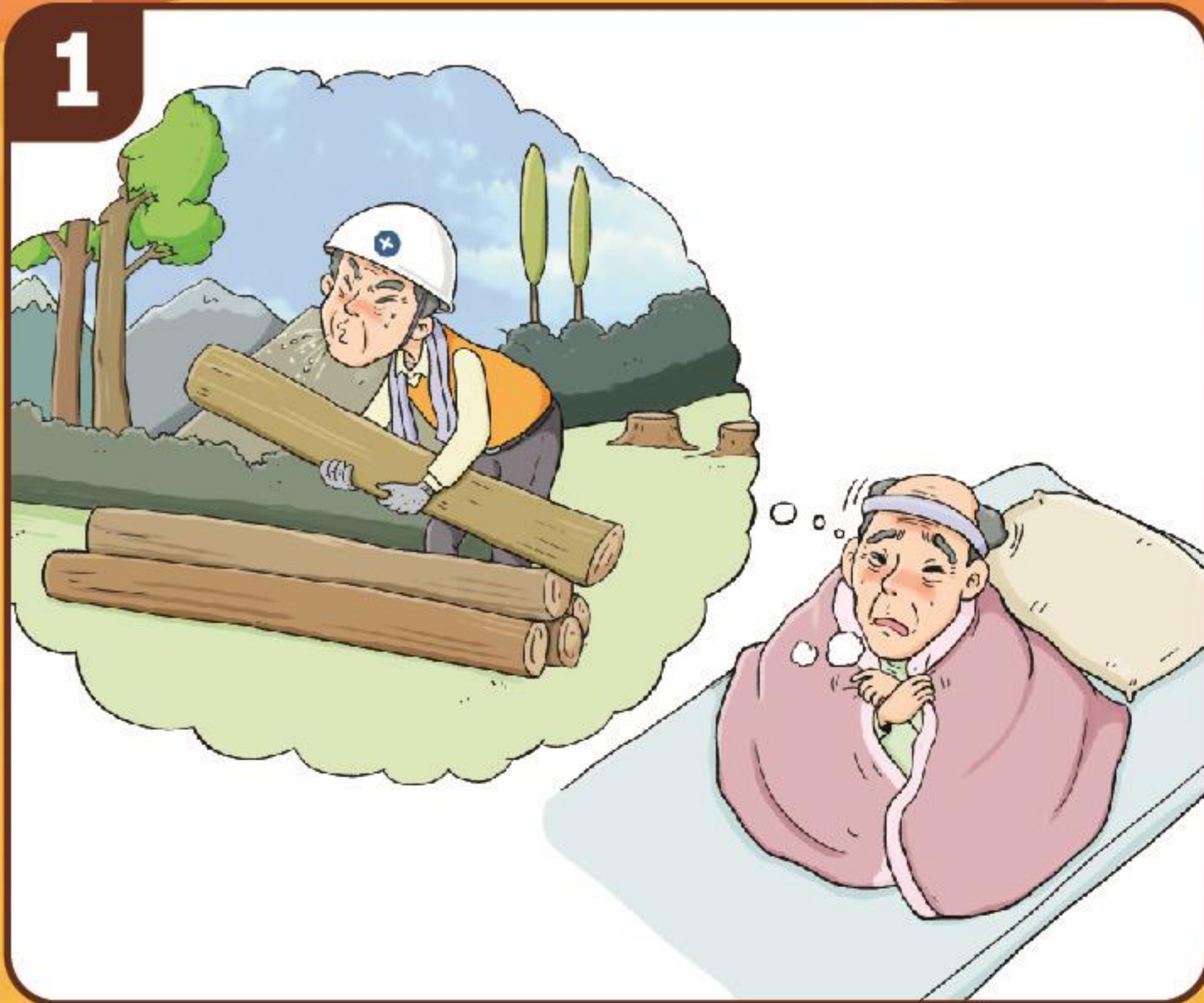


2. 주요 질환 및 특징

구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정의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한탄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발열성질환
매개체	털진드기 유충	작은소피참진드기	설치류(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 소, 돼지, 개 등
국내 발생시기	10-12월	4-10월	연중 발생 가능하나 대부분 10~12월에 집중	9-11월
감염경로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 등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먼지 등과 함께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 점막을 통해 감염 * 홍수, 태풍, 장마 때 오염된 물에 주로 노출
증상	가피(딱지)형성, 발진, 발열, 오한, 두통, 구토, 기침 등	고열(38°C),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뇨 등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 등	감기증상, 중증의 황달, 신부전, 출혈 등
잠복기	1-3주	4-15일	2-3주	5-14일

※ 출처 : 질병관리청

3. 재해사례



발생과정

59세 임업종사자인 최씨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발열 및 구토 등 감기증상을 느낌

질병

쯔쯔가무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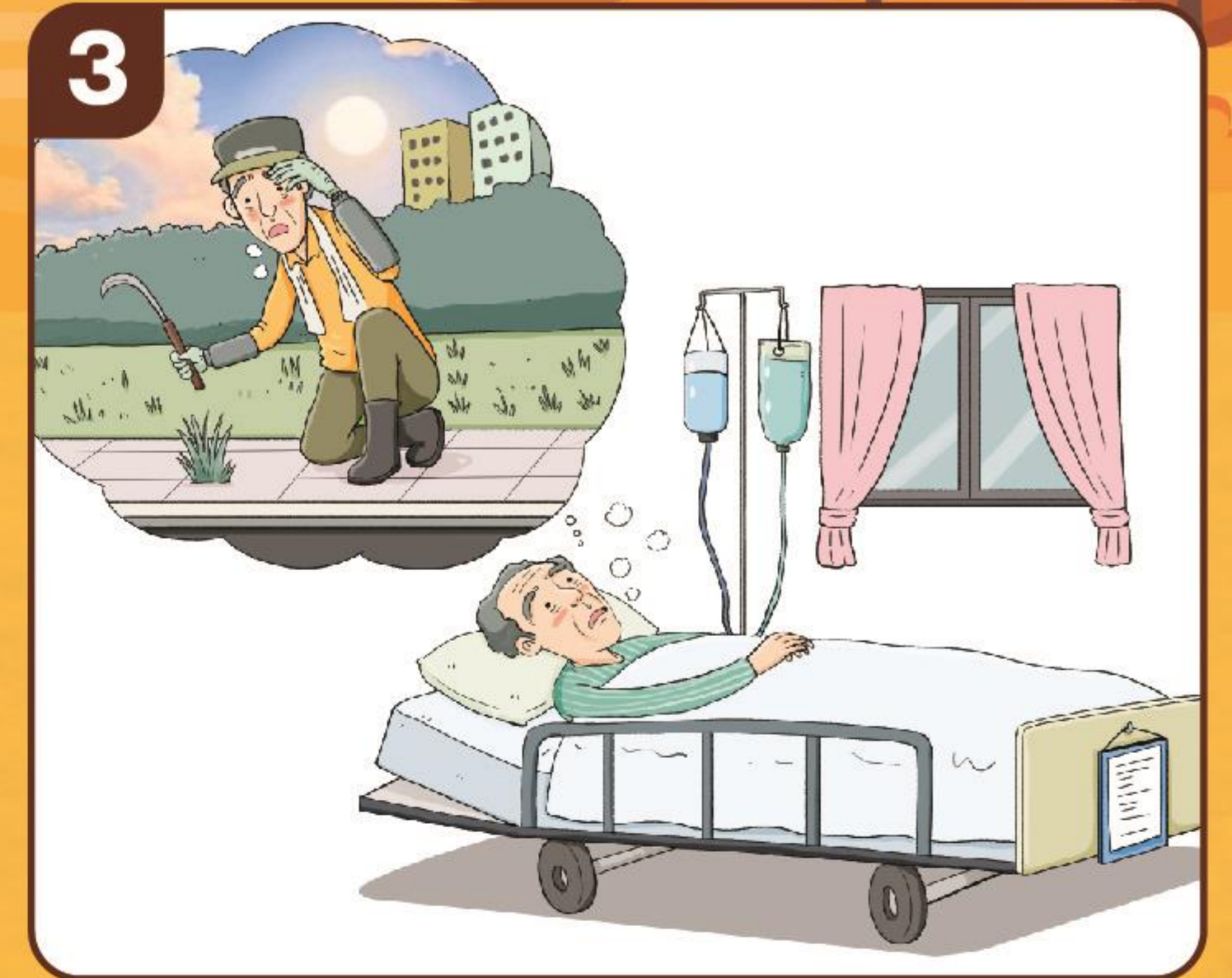


발생과정

28세 회사원 김씨는 10월 23일 야유회를 다녀온 후, 11월 26일 위장관련 증상으로 응급실 방문하였고, 패혈성 쇼크, 급성 신부전으로 당일 사망

질병

신증후군출혈열



발생과정

기세 김씨는 2014년 도로변 풀베기, 딸감 나누어주기 작업 후 감기 증상과 비슷한 발열로 어지럼증, 발한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와 급성 신부전을 앓다 사망

질병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4. 예방대책

구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착용 * 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진드기 기피제를 작업복에 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풀밭 위에 눕지 않기 ▶ 휴식할 때 돛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샤워 및 새 옷으로 갈아입기 ▶ 몸에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 ▶ 작업복은 귀가 즉시 털어 세탁 ▶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료
신증후군 출혈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나 쥐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 ▶ 야외작업이 많은 군인, 농부 등의 경우 예방접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 서식지(산, 풀밭 등)에 눕지 않기 ▶ 음식물 섭취 제한 및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시 작업복 즉시 세탁 ▶ 작업 후 샤워 ▶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료
렙토스피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여있는 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작업 피하기 ▶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고무장갑, 장화 등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물에 닿은 손, 음식, 의복은 입에 접촉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고, 피부 상처부위는 방수밴드로 보호하기 ▶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료